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 가이드라인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 가이드라인 12문 12답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 가이드라인 12문 12답

---

## \* 가이드라인의 활용방법

본 가이드라인 교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5년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개발 '창의적 체험활동용 초등학생 양성평등 학습교재'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집필자 :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Q&A

## Q1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성차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아직도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가요?

Tip

학교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며, 학교 밖 세상에서는 학교만큼 양성평등의 가치가 정착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A1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가치가 생활의 다양한 영역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애쓴 부분이 많아서 성차별 문제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양성평등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면 여전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학교 밖 세상에서는 학교만큼 양성평등의 가치가 정착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성평등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Q2 양성평등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그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Tip

인권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차별과 관련한 감수성을 키우며, 양성평등의 가치 구현을 위한 방법 모색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A2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목표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남녀의 특징이나 차이 등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인간으로서의 공통성과 존엄성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용 측면에서 우선 성차별과 관련한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성차별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성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역시 내용 측면에서 양성평등의 가치 구현을 위한 방법 모색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차별이 문제시 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일 등을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방법 혹은 자료 측면에서 학생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가족, 학교,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Q3 '양성평등 의식'이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교사가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Tip

수업이나 상담, 생활지도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나 기준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A3 바람직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사로서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차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죠.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차별은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가 기준을 가지고 특정 성을 차별하는 것을 뜻하겠지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짐 정리를 시키면서 단지 성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남학생에게는 무거운 짐을, 여학생에게는 가벼운 짐만 들고 가게 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 시간에 몸을 풀 때 남학생에게는 축구공을 가지고 놀게 하고, 여학생에게는 줄넘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남학생이기 때문에 축구를, 여학생이기 때문에 줄넘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나 기준 때문에 특정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수업이나 상담, 생활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나 기준이 충분히 합리적인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개인의 선입견이나 오랜 관행 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그러한 근거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Q4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하나요?

Tip

여자와 남자의 생물학적, 문화적으로 고유한 차이를 반영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A4**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마치 남학생과 여학생을 어느 경우든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자와 남자의 고유한 차이를 반영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 화장실을 만들 때, 여자 화장실 수를 남자 화장실 수의 1.5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5 양성평등 교육을 할 때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더 배려해주어야 하나요?

Tip

양성평등 교육은 남녀 모두가 자신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단지 여학생을 더 배려하자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A5** 앞에서 우리는 성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나 기준을 적용하여 어느 한 쪽 성에게 더 유리하게 대우해주거나 다른 한 쪽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여학생을 더 배려하는 것은 남학생 입장에서는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역차별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신체적인 힘의 크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숙제나 과제 등에서 여학생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배려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남녀 모두가 단지 자신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단지 여학생을 더 배려하자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성평등이 여학생에 대한 특별 대우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학생의 자립심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6 양성평등 교육에서 가족을 소재로 다룰 경우, 학생의 실제 가족 상황을 소개하도록 해도 되나요?

Tip

학급 내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 가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기보다는 가상의 가족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6** 가정에서의 성차별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경우에 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소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 가족도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도 조손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구성된 4인 가족 외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쪽, 혹은 양쪽이 없는 가족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 스스로도 자기 가족의 모습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학생의 사생활을 고려한다면,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 등은 물론이고 이른바 4인 가족에 속한 학생도 자신의 가족을 직접 소개하고 다른 학생의 가정과 비교되는 과정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거나 사생활이 알려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 - 일반부 대상 | 언제쯤 저는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정영찬)

따라서 **학생 가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의 가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양성평등 교육 교재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가정에서의 성차별을 다룰 때 학생의 가족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에서도 개별 학생의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이 교사의 설명이나 학생의 발표 등에서 구체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경우에만 완전하거나 좋은 가족이 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Q7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성 역할 분담 체험 같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Tip** 가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중요한 내용이나 단지 한 두 번의 역할 바꾸기 체험과 같은 활동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A7**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다른 구성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가족 내에서 성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남자는 여자 역할을, 여자는 남자 역할을 단순히 맞바꾸어 맡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성평등 교재에서도 실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분담과 같은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빠가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양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단지 한두 번의 역할 바꾸기 체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모든 가족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아빠가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그와 같은 역할 바꾸기 체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Q8 양성평등 교육에서 가족을 소재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족 관련 내용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Tip

학생의 실제 가족보다는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활용하여 가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A8 아닙니다. 가정에서 성차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꼭 다루어 학생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고 점차 그것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재혼 가족 등의 사례도 자주 노출시켜서 그러한 형태의 가족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가족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주 보는 동화책, 소설책, 드라마, 영화 등의 내용에 나오는 가족을 활용하여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해 학습하는 방안으로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동화책에 나오는 두 가족을 소개하고 어느 가족이 더 평등한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해 다루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중매체 속 가족을 다룰 때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도 다루면서 그 안에서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부모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리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여자)라는 존재가 원래 요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든 엄마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 집안일도 '엄마' 육아도 '엄마'??

집안일도 육아도 자연스레 '엄마'가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사회에 단 한 곳 차이로도 여러분의 고정관념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EQUALITY

ipd

국제디자인교류재단  
INTERNATIONAL DESIGN EXCHANGE FOUNDATION

**Q9** 양성평등 교육을 하다보면, 성차별이 생기는 것이 남자들만의 책임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Tip**

특정 성에 대하여 차별하는 개인의 인식이나 사회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성차별을 다룰 때, 여자가 경험하는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겪는 차별도 같이 다루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A9** 양성평등 교육은 어느 한 성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차별은 경우에 따라 여자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고 남자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등을 다루다 보면 마치 남자들이 양성평등의 방해 요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면 된다거나 남자들만 바뀌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특정 성에 대하여 차별하는 개인의 인식이나 사회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남자가 경험하는 차별도 적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결혼 준비나 가정의 생계유지 등과 관련하여 남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차별을 다룰 때, 여자가 경험하는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겪는 차별도 같이 다루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Q10** 학교에서 실시해 본 양성평등 관련 활동을 가정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과제를 내는 것은 적절한가요?

**Tip**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활동을 해보도록 권장하는 정도로 지도 바랍니다.

**A10** 양성평등 교육의 세부 주제를 보면 사실 학생보다는 가정에 있는 학부모에게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집에 돌아가 부모 등과 이야기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강제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일종의 과제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제 형태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양성평등 내용 중에서 학생이 학부모와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으면 그것이 일종의 과제처럼 인식이 되어서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無理하게 꾸며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다룬 양성평등 관련 주제에 대해 대화하거나 활동을 해보도록 권장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11** 교재에서 차시별로 제시된 내용을 수업할 때 한 차시 내에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 차시 내에 소화해야 하나요?

**Tip**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활동을 해보도록 권장하는 정도로 안내 바랍니다.

**A11**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은 한 차시를 40분 동안 진행하는데, 수업 과정에서 도입이나 정리 시간을 빼고 나면 약 30분 정도가 본격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차시별로 '생각열기 - 생각키우기 - 생각굳히기 - 나와 연관시키기 - 정리하기 - 읽을거리' 등 매우 다양한 절차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40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단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예컨대 '나와 연관시키기'나 '정리하기', '읽을거리' 등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모든 활동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학생과 교사 모두 지칠 수 있고 오히려 수업 효과가 줄어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정규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2** 양성평등 수업을 할 때 교사로서 양성평등 의식이 부족하거나 거기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Tip**

양성평등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 배우며 실천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혹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면 교사용 지도서를 읽고 동료교사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A12** 대체로 어떤 가치 지향적인 내용을 수업에서 다룰 때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 대하여 많이 알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짧은 순간에 내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양성평등 의식을 학습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교사 역시 자신의 양성평등 의식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모두 배우며 실천하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면, 우선 교재와 같이 제공되는 교사용 지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성차별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에는

혼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동료 교사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서로 확인해도 일단 힘이 되고, 더 나아가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혼란이 계속된다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담당자, 교육지원청의 연구사 등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과 생활 지도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양성평등 교육에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실 수 있다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양성평등 관련 강좌를 들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성평등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다음 강좌에 무료로 연수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선생님들께 추천하는 연수 강좌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제 10-2호)으로 인가받아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과 정 명	비고
15시간 (1학점)	교원 양성평등교육 교원 성폭력예방교육	유료
30시간 (2학점)	초등교사를 위한 양성평등 수업적용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15시간 (1학점)	두드림 양성평등교육 이미 시작된 변화, 성매매예방	무료
30시간(2학점)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 연수를 듣는 방법

각 과정별 수강신청 기간에 맞추어서 <http://egenteacher.kigepe.or.kr> 에서 신청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